

고전적 본풀이

이번에는 눈미 와산 고칩, 양칩에 조상본풀입네다. 고전적 조상부터 하겠습니까.

옛날 고전적 할아버지가 부모 혈속 탄생할 때에 얼굴은 보난 관옥이오, 몸은 풍신이라. 구덕에 녹전 자는 건 글소리, 노는 건 활소리, 혼 설 두 설 일곱 설이 당허영 한문서당 부치난 읽어도 자원, 써도 자원 하도 경 열일허연. 경 허연 입장 결혼 허난 딸 하나 나서. 딸 하나 나신디. 이젠 옛날 그 시절에는 빼우령 양반칩이서만 사돈 삼을 때난 뜰을 나난 구덕 혼스¹⁾를 하는데 저기 그 예촌 양자숙 댁에 간 구덕 혼스를 허여 두고.

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헌덴 허난, 과거 보레 가젠 허난. 아기씨 몸종은 악성이, 악성이 돌아단 몸종을 놓아두고, 겐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허레 간. 삼천 선비들 가운데 과거 시험을 본디 다섯 가지 베실이 합격이 된 거라. 첫 베실은 내직 베실, 둘째는 웨직 베실, 셋차는 참이 참판 베실, 넷차는 전적 베실, 다섯차는 현감 베실. 겐 다섯차 베실이 줄줄이 내려오난. 그때엔 하르바님 어느 밑으로 들어가사 혈 거난. 저 한양 고을로 들어간 거라. 한양 고을에 간 하르바님은 사는 게, 하도 밑음씨도 좋고, 하간 해결도 잘 허고 모든 걸 잘 다스려 백성들을 잘 다스려네 현감살이를 허난. 연삼 년을 살안 오젠 허난 밑음 백성들이

“아이고, 현감님아 혼 해만 더 살아 줘서. 두 해만 더 살아 줘서. 스정스정 허는 게. 스정에 버천 살단보난, 혼 십 년을 살아진거라. 겐 살안. 살단 보난 고향에 가속(家屬)도 있고, 애기도 단뜰애기 난 내비여 똥²⁾ 오고 게난 이젠 어떻돼신고 아멩헤도 가야돼켄. 마을 백성들이 오꼴 나산거라. 물 내여놓고, 피리단자, 옥단자 내여놓고. 하르바님을 배 타는 디라도 모셔 가젠. 겐 물을 탄 왕강싱강 오노렌 허난. 저 영암. 덕진드리를 당허난. 어떤 열 칠팔세 난 청비발애기씨가 무신 두리알낭포³⁾ 데가리에 이고 허여네 하르바님 앞을 확 허게 젓인거라. 게난 하르바님이, 현감님이. 용심수산 내명

“야, 어떻헌 여자냐. 여자엔 헌건 꿈에만 시꾸와도⁴⁾ 새물인데. 양반의 행차 길에 어떻허난 여정네가 앞을 젓없이넌.”

그땐 하인덜 7라,

“당장 강 저 여정넬 심어오렌.”

겐 심젠 허난 스낭뱃드레 호로록허게 들어가분거라 그 여자가. 게난 하인들은 심젠, 스낭뱃디 들어간 암만 좃으난 잇어. 훤은 스낭뱃, 존 스낭뱃 아레 간. 암만 좃아도 인기척은 잇어지고, 스낭뱃 아레보난 두리알낭포 포따리가 잇인거라. 게난 그 포따리를 스낭뱃 아레서 클런 보난, 진녹색 저고리에, 연뱃물 치메에, 은빈에, 늦빈에, 은가락지, 늦가락지, 청메실, 흥메실, 주홍당상 벌뭍작 그런게 잇이난. 이제 탁 포따리 묶언

1) 구덕 혼스: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배필이 될 것으로 정해 두는 것.

2) 내비여 똥: 내버려두고.

3) 두리알낭포: 천의 일종.

4) 시꾸와도: 나타나도.

하인들은 이제

“아이고, 현감님 모르게 우리 제주절도 갖영가민 큰 재산이난. 우리 곱정 가게.”

헨. 이젠 나완보난

“현감님아, 간 보난 인간처랑 말앙 아무 물체도 엇입디텐.”

헨. 경 허냐고. 경 헨 이젠 벳머리로 느려산 거 아니. 겐 이제 벳머리로 느려산 베를 제주도더레 돌령 베질을 헤여 올건디. 원, 베질 헐 일기가 안 나는 거라. 겐 두 일레 열 나흘을 딱 묶어젼 못 돌아가난 현감님이 어디 간 장님신디 간 문복단점(問占)을 허난.

“현감님아, 벳장 알을 뜯영 봅서. 벳장 아래 보물 곱으고, 제물 곱은 두리알랑포가 잇수다. 그걸 벳장 우터레 내어 놓아. 산돏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영 바당드레 그거 던져볼고, 경 허영 방고삼채⁵⁾를 올려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수다.”

헨. 이젠 완. 아닌게 아니라. 벳장 알 뜯영 보난 두리알랑포가 있어. 이제 그걸 앓아내언 백장 우이 놓안, 산돏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고, 이젠 방고삼채를 덩덩 올리고

“나에게 태운 조상이민 제주절도로 가민 위허쿠다.”

허연 물꺼꿈⁶⁾더레 훅 데껴분거 아니. 겐 헨 현감님은 이젠 오는디. 그 애기씨 몸종 약싱인 이젠 연세답을 허레 저 화북 금동지 알에 간,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. 물꺼꿈에 두리알랑포가 올라온 거라. 게난 이젠 그걸 앓아네 올라갓주게. 올라가네

“아이고, 애기씨 상전님아 이레 와 봅서. 이레 와 봅서.”

허난

“무사?”

허난

“이레 와 봅서. 이디 곱닥헌 저고리도 잇고양, 비녀도 잇고, 가락지도 잇고양. 다 잇수다 이레 읍서.”

허연. 이젠 비녀 허연 찢르고, 애기씨 머리더레 찢르고, 가락지 헨 끼우고, 진녹색 저고리에 연반물색 치메여 입져가난 애기씨가

“악싱아~”

허난.

“예.”

허난

“어평허난이. 나, 어깨에 청지녕이⁷⁾ 기는 듯, 흑지녕이 기는 듯이, 막 스프스스스스 없져.”

헨. 아, 그 말 곱아된 그냥 삽시간에 실연실청 실연광청이 들린거라. 막 소리허멍 이녁만 영암 덕진드리로 놓고 가자. 뽀, 훤은 소낭뵈디로 놓고 가자. 겐 소낭뵈디로

5) 방고삼채: 시작의 신호로 북을 세 번 치는 일.

6) 물꺼꿈: 물거품.

7) 청지녕이: 청 지네.

놓고 가자. 안세미로 놓고 가자. 밧세미로 놓고 가자. 지리세미로 놓고 가자. 막 소리
허멍 춤을 들썩들썩 추단 악싱이가 눈 꿈박 허는 사이에 애기썩 감감무중 뉘분거라.
아이, 이 노릇을 어뎡허코 걱정허노렌 현 차에, 이제 현감님안티서 연락이 오기를

‘현감님 금동지 알로 배 대어시메 빨리 애기씨 들앙 오렌.’

악싱이안티 연락이 온 거라.

“아이고, 이 노릇을 어뎡 허민 좋고.”

이젠 그냥 악싱이만 간 거라. 간, 먼 딜로 옆데헤연

“현감님아, 죽을 췌를 지엿습네다.”

“뭘 췌냐?”

허난

“그런게 아니고. 애기씨는 어제, 그지갯날 감감무레가 뉘언 이젠 애기썩 엿수다.”

허난

“이년, 저년 죽일년 잡을년아.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강 애기씨 안 좇아오민 너, 청
뎡뎡⁸⁾에 목 걸령 죽이켤.”

계난 이젠 애기썩 좇아야 될 거 아니. 계난 이젠 일어산 비새(悲鳥) 곶이 울멍

“아이고, 날 난 어뎡은 어디 가신고, 좁쌀메만이만⁹⁾ 살 도래가 시민 무사 놈이 집
종살이를 허리.”

그 말 곶멍 울멍 애기썩 좇당보난. 저 산더레 보난, 애기씨 치메영 저고리영, 이제
옥색저고리에 빨간 치멜 입으난. 그것이 걸런 찢어진게 년들년들 가싯냥¹⁰⁾에도 걸어
지고, 덤벌에도 걸어지고 허난. 그걸 중심으로 툇랑 간 보난, 그 애기씨 구덕훈스 헤
난 예춘 양좌숙 댁에 가 분거라. 겐 그디 간.

“계시파? 이디 저 목안 애기씨 아니 덩깁디가?”

허난

“목안 애기씨 산디, 누게 산디 모르긴 허주만은 어제, 그지갯날 온몸이 피로 유월
(流血)이 낭자뉘언. 저 뒤에 신돔박냥 아래 간 왕대 죽대 꺾어단 그걸로 피리단저, 옥
단저 불단, 오늘 아침인 우리집 장남덜 논 밧디 일허레 가가난 그디 혼디 갓젠.”

“그딘 어딜로 갑니켤?”

허난

“요만치, 요 제 넘고, 저 제 넘영 가 보렌.”

헨. 간 보난. 아이고, 집이선 아무 일도 안 허영 꽃 곶이 키운 애긴디, 젓대 곶은
걸어 놓고, 정강이 걸어 놓고 허연. 이레 참방, 저레 참방 들어산 논일을 헛어. 악싱
이가 간.

“아이고, 상전님아, 상전님아. 이거 어뎡 현 일이우파. 큰상전님 오란 상전님 제게
아니 좇아오민 날 청뎡뎡으로 목 걸령 죽이켤 허연 좇안 오랏수다.”

허난

8) 청뎡뎡: 푸른 대나무 잎.

9) 좁쌀 메만이 만: 좁쌀 만큼 만.

10) 가싯냥: 가시나무.

“너, 이년아. 날 들레오명 어느 게 옷가메냐, 어느 게 쌍가메냐?”

가메도 허나 아니 갖어 왓덴 욱을 헨 거라.

“그런 거 못 앓어 온건 나 쥬척¹¹⁾이고, 나 등더레 돌아집서.”

경 허연. 이젠 업은 반, 꺾임 반. 경 허연 집이 들안 온 거 아니. 집이 돌아 완 구 들더레 노난. 그날부떠 먹던 밥도 아니 먹고, 자던 줌도 아니 자고. 막 실연광증이 뉘 거라. 게난 일가 쁘당¹²⁾들은 현감신디

“현감님아, 어디 강 들어뵘 무시거 험서.”

다 곱아도

“양반집이 굿이엔 헨 건 뉘고.”

허명 욱만 부수헨거라. 이젠 허단허단 버치고, 쁘당덜 꺾에 버천 가물개 이원신안티 간 문점을 지난

“이 애기씨 살리컨 굿을 험서.”

허난. 이젠 그 애기씨 살리젠 집이 이원신 오란 굿을 시작헨 거 아니. 초감제¹³⁾가 넘어들고, 초신맞이¹⁴⁾가 넘어들언 초이공맞이¹⁵⁾가 당허난 이원신님이 곤는 말이

“현감님아, 곤기는 쥬송허우다만은 애기씨를 시왕맞이 앞이 내어놓앙 춤을 추와 보는 게 어떻허우짜?”

허난

“이거 양반집이 굿허는 것도 사름 험 짓이 아닌데, 양반이 뉘 내뵘 춤추덴 말이 뉘 말이고?”

욕 해뉘.

“게든 애기씨 대신 애기 몸 받은 몸종이 나상 춤추는 건 어떻허겠느냐?”

허난

“아멩이라도 험셴.”

겐 이젠 애기씨 대신 애기 몸종 악싱이가 나산 니나뉘뉘뉘냐 니나뉘뉘뉘냐 허 명 시왕 앞으로 춤을 쉰. 경 허난 이젠 그 굿을 액 막안. 도액 막안 딱 곤는 말이

“현감님아, 곤기는 쥬송허우다만은 곱을 말은 곱아야 되겡습니다.”

“뉘 말이나?”

허난

“우리가 이 굿을 멩¹⁶⁾ 가불민. 삼일이 넘고, 오일 칠일 안네에 동네 금방상에 어디 초흔 소리가 나면 애기씨가 살아난 줄을 알고, 경 안 허건 애기씨 녹는 구들문을 올안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습네다.”

허난 그 굿을 멩 가불고. 현감님은 어느 제민 사흘이 뉘건고, 동네 초흔 소리가 안나. 어느 제민 닷새가 뉘건고, 초흔 소리가 안나. 어느 제민 일레가 뉘건고, 일레

11) 쥬척: 죄의 대가, 죄값.

12) 쁘당: 친척.

13) 초감제: 청신(淸神)의 제차(祭次)로서, 정장(正裝)한 수심방이 집전해 나감.

14) 초신맞이: 초감제 후에 다시 재차 떨어진 신을 청하는 제차(祭次).

15) 초이공맞이: 초공과 이공신을 맞아들여 하는 맞이굿.

16) 멩: 마쳐서.

뒤도 동네 초흔소리가 안나난. 애기 녹는 구들문을 올안 보난 동이¹⁷⁾ 곱이 사려 앓안¹⁸⁾ 애기씨가 죽은 거라.

게난 현감님이 울멍 통곡을 허뒤,

“서룬 애기야, 영 죽을 줄 알앗이민 내어 놓앙 춤이라도 추게 내불걸. 춤도 못 추게 허연 서룬 애기 죽엇젠.”

경 헤연 본메본짱¹⁹⁾이나 내어 주켄 허연. 이추록 허연 영 허영 사려 앓앙 죽은 거 주게. 꼭 영 허연 앓앙 죽으난. 놀랑 동이풀이 대풀이나 받기 마련허렌 허연. 동이풀이 받는 법은 그 애기씨 나시. 경 허연 한복 입지고, 쏘곱에 쌀 놓고 허영 허는 거. 겐 죽으난, 이젠 저 명도암 고장남밭 안 테왓디 가네 가운데 묻은 거라. 아, 묻언 얼마 엇이난 몸종 악싱이가 죽은 거라. 겐 악싱인 죽으난 애기씨 몸종이난에 왼쪽으로 간 묻엇주. 묻언 놔두난 얼마 엇이난 또 현감님이 죽은 거라. 현감님은 아버지난 우 터레 간 묻언. 또 얼마 엇이난 이원신님^{??}지 죽은 거라. 겐 이원신님은 올레로 간 묻언. 겐 흔 목숨 죽을 때, 네 목숨이 죽언. 게난. 이제 그 고칩이나, 광산 김칩이, 명도암 광산 김칩인 간 보면 이제 이 조상을 허는디. 명도암에서 그 맛을 즈순덜은 본향으로 워허고, 먼디 사는 즈순덜은 조상으로 워허영 이 조상을 놀리는 고칩이 허고, 광산 김칩이 이제 조상입네다.

17) 동이: 그릇의 일종으로, 넓으나 별로 높지 않은 질그릇의 일종.

18) 사려 앓앙: 움츠려 앉아서.

19) 본메본짱: 증거가 될 만한 물건.